

## 일본의 중국 리스크 대책과 대ASEAN 투자

-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베트남과 태국 등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
- 생산거점으로서 ASEAN의 매력, ASEAN시장의 높은 성장성으로 한·중·일간 아세안 진출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, 한국, 중국 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, 일본에게 아세안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

### □ 생산거점으로서 ASEAN의 매력

-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베트남, 태국, 등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,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보 및 자금 양면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음
- 베트남 하노이 근교 공업단지에서 의류를 OEM생산하는 일본투자기업 M&R(주)은 2002년 중국 광주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건비 상승, 빈번한 노동쟁의 발생 등으로 2008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
- 일본의 경우, 인건비 자체만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도 선택할 수 있었으나, 주된 공급처인 일본기업까지의 수송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킬 필요가 있었음. 나아가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거대 시장에의 접근성도 고려하여 베트남 진출을 결정

- 중국 공장은 현재도 가동하고 있으나 소로트 생산에 특화하는 한편, 베트남 공장은 주력 생산거점으로 승격
- 베트남에 국한하지 않고, ASEAN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 -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국제수지 기준으로 4,359백만달러에 이룸. 이는 동 기간 중 대중국 투자액의 약 60%에 상당
- ASEAN국가들은 비교적 젊은 인구층이 많고, 임금수준이 낮음.
  - JETRO에 의하면, 싱가포르 등 일부를 제외하면 ASEAN 주요 도시의 일반직공 월평균 기본급은 100~200달러대에 집중. 200달러 후반대에서 500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주요도시에 비하여 절반 이하 수준임
- 이와 같은 경향은 엔지니어나 관리직에서도 마찬가지임. 초엔고,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제조업으로서는, ASEAN이 새로운 생산거점이 될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음
- 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는 데, 아세안국가들도 예외는 아님.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여 임금격차가 몇 배 이상이나 됨

## □ ASEAN시장의 성장성

- 아세안이 외국기업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은 제조거점으로서의 가능성만은 아님.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

- ASEAN에는 인도네시아와 같이 2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도 있는가 하면, 브루나이와 같이 일본의 미에(三重)현 크기의 면적에 인구 36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도 있음
- 그러나 아세안 10개국 전체로 보면, 역내 인구는 2011년말 현재 6억을 돌파, 중국, 인도에 비하면 떨어지나 일본의 약 5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임
- 성장성면에서도, UN「장기인구예측」에 의하면 아세안 역내 인구는 2030년에 7억 3,517만명에 이를 전망. 2010년부터 20년간 약 1.4억명, 비율로는 24.1%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더욱이 연령별로 볼 때, 젊은층(15~29세)은 답보상태이나 한창 일할 장년층(30~49세)은 22.2%, 시니어층(50~64세)도 71.9%나 증가
- 65세 이상 고령자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나 유년층도(0~14세)도 8.6% 증가
- ‘한 자녀 낳기 운동’으로 유년층에서 한창 일할 연령층까지 모두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과는 달리, ASEAN은 현역 세대만이 아니고 미래를 담당할 세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증가

## □ 한·중·일의 대아세안 접근·진출 경쟁

- 일본은 일찍부터 바로 ASEAN의 이 같은 잠재력을 인식, 아세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해 왔음
- 일본은행에 의하면 일본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11년까지 누계로 9조엔에 이룸. 7조에 못 미치는 대중국 투자와는 큰 차이가 있음

- 2011년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대지진의 와중에서도 1조 5491억엔에 달함.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총액의 17%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아세안에 대한 일본의 기대가 큼을 보여주고 있음
- ASEAN에 적극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님.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
-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장을 설립, 현지에서의 존재감을 급속히 높이고 있음
- 21세기 아시아패권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도 아세안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음
- 중국·베트남 전쟁으로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둔화. 그러나 메콩강을 공유하는 라오스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투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
- 최근 아세안을 중시하는 중국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었음. 9월 16일 차기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이 남영에서 개최된 중국아세안박람회에 참석
- 중국의 경제 매체들은 아세안과 중국의 외교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 기사를 연속 게재. 중국의 산업계로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아세안이 해외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임

#### □ 아세안 파워 : 아세안은 더 이상 약자연합이 아님

- 아세안은 중국과 인도라는 두 대국 사이에 있어, 그 지정학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경제적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단결하고 있음
- 1967년 아세안 설립 선언에 찬성한 것은 인도네시아, 태국 등 5

개국. 그 후 미얀마, 캄보디아 등이 가입. 세계 주요국들에 비하면 아세안은 작고 아직 빈곤한 편이며, 군사력도 적기 때문에 상호 힘을 모으는 노력을 계속해 옴

- 2015년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며, 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경우 역내 관세가 원칙적으로 제로가 됨
- 아세안은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도 적극적임. 이미 일본, 중국, 한국, 인도, 호주와 FTA를 체결·발효시키고 있으며,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TPP(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)에도 처음부터 가입하고 있음
- 오늘날 아세안은 더 이상 약자 연합이 아니며, 아시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존재임
-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, 일본기업들이 아시아 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#### <참고자료>

NIKKEI BUSINESS(2012.10.1)